

2013년 제4호
2013년 8월 16일 (금)
한농연중앙연합회
회원지원센터

한농연 조직 활성화 소식지

전화 : (070)7165-0017
전송 : (02)3401-6549
http://kaff.or.kr
kaff0001@gmail.com

한농연 지역 조직 활성화 모범사례 수집 및 분석 결과 (1)

○ 각 시도, 시군구연합회별 사례 취합 분석 결과 종합
(2013년 6월 30일 1차 마감 기준)

| 시도 | 시군구 | 구체적인 내용 | |
|------|------|---|---|
| 경기도 | 김포시 | • 학교급식 사업 • 자동차보험 사업 • 체험농장 운영 • 성화상토 사업 | |
| | 이천시 | • 이천시 마늘사업단 • 각 읍면동 퇴비 판매 수익 사업 • 친환경 쌀 재배 및 자체 도정 판매 사업단 | |
| 충청북도 | 청주시 | • 소류지 풀 제거 사업 | |
| | 충주시 | • 회관 건물 임대 | |
| | 청원군 | • 신규 농업경영인 교육 • 우수회원 선발, 시상 장학금 전달 • 청원생명 브랜드 홍보 및 육성에 많은 기여(애호박, 쌀, 절임배추, 사과) • 군청 농정과와 연4회 토론회 및 워크숍 • 매년 농협과 수매값 인상 협상으로, 2012년도 포대당 1,000원 인상 | |
| | | • 성금 전달(구제역 피해, 회원병원비, 회원화재, 연말 불우이웃돕기) | |
| | | • 농산물 판매행사, 영농자재판매 수익 읍면으로 전액 지원 | |
| | | • 매년 우수회원 선발, 시상 및 장학금 전달 | |
| | 보은군 | • 청년회 조직활동 • 한우 공동 사육 • 규산질비료 공동살포 | |
| | 진천군 | • 추청벼 농사를 통한 수익 창출 및 불우 이웃돕기 사업 | |
| | 단양군 | • 단양읍회 “농작물(잡곡) 재배”사업 | |
| | 전라북도 | 도연합회 | • 청년회 조직활동 • 품목위원장 선임 • 농축협조합장협의회 운영, 위원장으로 위촉 • 10월말 서울 내 직거래장터 특설매장 운영 • 시군 상근실무자 단체보험(상해, 질병) 가입(4대보험 대응) • 연초 시군연합회 순회교육 실시 • 이경해열사추모사업위원회 운영 |
| 익산시 | | | • 익산시 농업경영인 영농조합 |
| 군산시 | | | • 벚꽃축제 먹거리장터 운영, 콩당보리축제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|

| | | |
|------|-----------|---|
| 전라북도 | 남원시 | • 춘향제 먹거리장터 운영 |
| | 임실군 | • 고추축제 운영 |
| | 고창군 | •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 참여 |
| | 진안군 | •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 참여 |
| 전라남도 | 장성군 | • 친환경 광역방제단 운영 |
| 제주도 | 제주시 | • 읍면지회 자생력 강화 사업 • 동아리 사업 추진 • 타 단체와의 상생·발전을 위한 공동수익사업 추진 |
| | | 제주시 조천읍회 |
| | 제주시 제주지회 | • (구) 목석원내 제주 농특산물 홍보 판매관 운영(아라올레-수익발생) |
| | 제주시 애월읍회 | • 지역 주민을 위한 자체 전화번호부 발간사업 |
| | 서귀포시 | • 정책토론회, 농축협과의 간담회 개최 • 농가 일손 돕기 사업 • 지역 농산물 판매 사업 • 회관 건물 임대 사업 |
| | | 서귀포시 남원읍회 |
| | 서귀포시 대정읍회 | • 휴경지 임대를 통한 월동무 재배사업 (읍회 재정 마련) |
| | 서귀포시 성산읍회 | • 환경 정화를 위한 페비닐 수거 활동으로 읍회 기금 마련 |
| | 서귀포시 안덕면회 | • 면회 재정 마련을 위한 콩 재배 사업 |
| | 서귀포시 표선면회 | • 올레길 풀베기 사업 • 비닐 공동 구매 사업 |

○ 지역 조직 활성화 사례 수집·분석 결과로 본 시사점들

- 2010년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, 대다수의 사례가 행정 및 농·축협 등과 연계한 봉사활동, 지역 축제 등을 활용한 조직 내 재정 확충 사업에 집중되어 있음
- 회원들의 조직 참여 몰입도를 높이고, 당면한 지방 농정 이슈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은 다소 부족한 실정임
- 창업농(35세 미만까지) 및 신규 후계농(35세~50세까지) 등 신입 회원의 효과적인 영농 정착 및 조직 몰입도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·훈련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며, 신입 회원의 유입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
- 품목(축종) 및 지역별로 다양한 회원들의 이해 및 요구사항을 법령·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연합회 및 행정 등에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취약한 상황임